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화제'

전주콩 가치 살려 '볶은콩 두유' · '멀티시아' 등 4종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유강열)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제품을 잇따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전북도 고부가가치식품가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전주콩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 4종을 개발했다.

개발한 제품은 ▲전주콩나물의 콩을 활용한 '볶은 콩 두유'와 ▲약콩 종피 분말을 개발한 '멀티시아' ▲섬오가피와 산맥초 효능을 살린 '해독음' ▲목이버섯으로 만든 '한입목이' 등이다.

'볶은 콩 두유'는 콩나물로만 재배되던 전주콩나물 콩의 또다른 변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원은 전주콩나물영농조합과 함께 콩 특유의 비린내를 개선하고 유용성분 활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원료의 가공방법으로 로스팅 공정을 도입해 이소플라본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이 증진된 프리미엄 제품 '볶은 콩 두유'를 개발했다.

연구원은 이번 제품개발을 통해 전주콩나물 콩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 수요 창출을 통해 전주 콩의 우수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산물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원은 또 쥐눈이 콩으로 잘 알려진 약콩을 활용해 눈 보호에 효과적인 '멀티시아(Multicya, Multiple cyanine)' 제품도 추가로 개발했다. 이 제품은 약콩 종피와 비트 분말을 활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는 고부가 건강식품으로 약콩 종피는 베리의 왕으로 불리는 아로니아 보다 안토시아닌을 월등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β-글루칸이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은 약콩 종피의 안토시아닌과, 비트의 베타시아닌 성분이 눈 보호 효능이 있으며 눈 망막세포와 동물실험을 통해 자외선에 의한 손상과 백내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오가나무와 산맥초, 갈근을 발효해 개발해낸 '해독음'은 농업회사법인 어의당과 함께 개발했으며, 항산화기능이 우수하고, 몸 속 독

소인 활성산소종에 의한 염증 유발을 억제하는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오가나무는 섬오가피라고도 하며, 나무전체에 긴 가시가 있고 회갈색으로 통통, 고혈압 및 암에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목이버섯을 활용한 제품인 '한입목이'는 농업회사법인 버섯마투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목이버섯의 피부건강 개선 효능을 검증한 제품이다.

흑목이버섯과 흰목이버섯을 이용한 '한입목이'는 비타민 D와 베타글루칸(β-glucan), 콜라겐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목이버섯의 효능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그동안 지역농산물이 가진 뛰어난 효능을 활용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개발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농생명 자원을 연구개발 기술과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본격화

내년까지 역사관 · 꽃동산 · 아트파크 조성 등 추진

대한민국 근대민주주의 성지인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곤지산 초록바위 굴길 조성사업과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 발주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관 협치가 실현됐던 전주의 근대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련 유적지와 전적지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6개년동안 전주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위상에 맞는 기념 시설 조성 및 역사문화 자원화를 통해 전주의 근대 역사를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먼저, 시는 오는 2017년까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과 농민군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완산도서관과 곤지산 등 완산공원 일대에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들과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한옥마을과 풍남문 등에서 도보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초록바위에 진입데크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입데크로 이어진 초록바위 정상에는 등 의자와 조형벤치 등이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전망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역사관으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 주변에는 이팝나무와 영산홍 등 수목을 식재해 이용객들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용도 폐쇄된 배수지

를 재생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는 공간인 역사관과 꽃동산,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완산도서관 일부 기능 개선 및 리모델링을 바탕으로 (가칭)동학농민혁명 문화관과 민(民)의 광장 등 거점시설이 추가 조성된다.

시는 현재 복원공사가 추진 중인 전라감영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기 전에 숙영했던 삼천 우림교 부근, 용머리고개, 초록바위, 전주성사문지 등 주요 전적지를 연계한 동학관련 콘텐츠를 구축해 하나의 역사문화벨트로 묶을 계획이다.

시는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가 구축되면 기존 경기전과 풍패지 등 조선왕조의 분향으로 '왕(王)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와 함께, 민관 협치가 실현됐던 사람 중심의 '민(民)의 도시'가 결합된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지난 25일 김승수 시장과 김영지 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평화동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사회복지관 증축 개관식을 가졌다.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증축 개관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이 건물 증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섰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평화사회복지관은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영지 전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평화동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축 개관식을 가졌다.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로 지난 1992년 개관, 연간 8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400여명에 달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평화동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1번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평화복지관은 국비 14억원 등 총 16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기존 2층 건

물에서 4층 건물로 새로 지어졌다.

새롭게 증축된 평화복지관에는 최신 주방시설 등이 갖춰져 쾌적한 공간에서 독거노인들의 점심을 제공하는 등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평화사회복지관은 현재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등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건설기계 불법행위 지도점검

전주시가 불법 건설기계 사용 등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 간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방지와 건설기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회 등 관련단체와 명예건설

기계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건설기계사업자(대여·매매·정비·폐기업) 116개소의 등록기준 유지여부와 의무 위반, 미등록사업자, 불법정비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발생하는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유지여부 ▲자가용 불법 영업행

위 ▲건설기계 불법정비행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으로 점검결과 적발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덕근 전주시 차량등록과장은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 겨울철 폭설대비 교통관리 만전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폭설로 인한 도민 교통안전 및 소통확보를 위한 겨울철 폭설대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각 경찰서별 교통안전대책반 구성과 기상

에 따른 근무강화 및 비상근무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합동 대응 훈련 등이 진행된다.

한편, 도내 최근 5년간 겨울철 교통사고는 361명이며, 이중 빙판길 사고로는 38명이 사망했다.

/김민근 기자

귀금속 흡친 20대 여성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지인의 집에서 귀금속을 흡친 김모씨(24, 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자주 왕래를 하던 지인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금반지와 예물 목걸이 등 2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민근 기자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16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전국유일 홍삼특구!

✓ 세계유일 홍삼명인!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진안군수 품질인증!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